

父母役割에 대한 責任意識*

-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방 은 령**

Bang, Eun R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nd to examine how these are influenced by parent's sex and child's sex. A total 320 subjects who have preschool 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athers, 151; mothers, 169) were randomly selected from nursery school,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s (PPRS) of Gilbert and Hanson (1983) was translated and supplemented by the investigator and employed in this study.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MANOVA, Univariate F-test, and One-way M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1. In Cognitive Development (CD), Handling of Emotions (HE), Social Skills (SoS), Personal Hygiene (PeH), Health Care (HC), Material (M), Meeting the Emotional Needs (EN) and Child Care (CC), mothers perceived higher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than fathers did, and in Physical Health (PhH), fathers were higher than mothers.
2. In HE, Survival Skills (SuS), and M, mothers perceived higher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toward daughters than sons.
3. In HE, SuS, M, EN and CC, fathers perceived higher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toward daughters than sons, and they were higher in SoS and PhH, toward sons than daughters.

* 본 논문은 제39차 대한가정학회 주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교 조교.

I. 序論

1. 問題의 提起

子女의 成長과 發達에 있어서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養育者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위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6~24개월된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Kotchuck (1976)은 아버지 중에서 약 75%는 자녀를 양육할 때 따르는 신체적인 접촉(physical contact)을 거의하지 않으며 자녀를 돌보는데 대한 책임의식(Child care responsibilities)도 어머니에 비해 매우 약하다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Levant (1980)에 의하면 오늘날 成人 男子들이 갖고 있는 父母役割에 대한概念은 傳統的인 것에서 많이 변화되어, 아버지들도 子女養育(nurturance and care)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녀 양육영역은 대부분 어머니가 전담하고 아버지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문미옥, 1982; 위영희, 1978; 유영주, 1981)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전통적인 役割概念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을 이루고 있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여성들의 社會進出도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자녀양육문제를 어머니가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자신은 물론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子女養育에 대한 責任意識을 심어주고, 現代社會에서 요구되는 父母役割에 대한 概念을 올바로 전달해 주는 것

이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본 研究는 이와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책임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또 책임감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父母와 子女의 性別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責任意識을 구명하려는데 主目的이 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1. 父母役割에 대한 責任意識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가?

1-1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의식은 어머니와 차이가 있는가?

1-2 딸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의식은 어머니와 차이가 있는가?

2. 父母役割에 대한 責任意識은 子女의 性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2-1 어머니가 지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아버지가 지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부모역 할에 대한 책임의식(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Gilbert 와 Hanson (1983)이 제시한 13영역의 역할들을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말한다.

② 자녀

: 학령전기와 학동기에 있는 아동을 말한다.

II. 理論的 背景

1. 父母役割에 대한 概念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傳統的인 父母의 概念은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였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역할 모델인 동시에 경제적 지원자요, 의사결정자이며, 사회적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인성형성과 교육, 건강 및 위생관리 등을 담당하여 자녀양육문제는 대부분 어머니가 전담하였다(유영주, 1981). Parsons와 Bales, 그리고 LeMaster는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과 표현적인 역할(expressive role)로 묘사했는데(Bigner, 1976) 現代社會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개념은 많이 변화되었다.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역할은 보다 직접적인 양육문제를 놓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Adam과 Davis, 1978) 과연, 어머니만이 자녀양육자로서 적절한 유일한 存在이고 또 그 책임을 전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정과 사회생활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Main과 Weston(1981), Easterbrooks와 Goldberg(1984) 등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들도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건강 또는 위생관리 및 생활습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머니 못지 않게 이에 관한 일

들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Levant(1980)나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조사한 Gilbert과 Hanson(1982, 1983)의 연구에서도 父母役割에 대한 概念은 전통적인 것에서 많이 변화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느끼고, 함께 참여하려는 인식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父母와 子女의 性別에 따른 子女養育 樣相

그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性別에 따라 자녀양육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해 왔다. 일찌기 Freud, Adler, Erikson, Bandura 등의 학자들도 부모는 역할모델로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자녀와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과 같은 性의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Adams와 Davis, 1978 : Stoneman과 Brody, 1981 : Thompson, 1975) 자녀와 상호 작용을 할 때는 자신과 다른 性의 자녀에게 더 애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rmentrout과 Buger, 1972 : Dropplemen과 Shaeffer, 1963 : Langlois와 Dawns, 1980 : Snow, Jacklin, Maccoby, 1983) 이러한 양상은 특히 아버지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Block, 1979, 1981 : Fagot, 1978 : Lamb, 1976 : Lynn과 Gross, 1972). 즉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역할기대나 성취기대 및 상호작용을 할 때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거의 두지 않고 대하는 반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서 더 높은 역할기대와 성취기대를 가지면서도 아들을 대할 때보다 더 관대하고 다정한 태도로 딸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아는 “약하고” 남아는 “강하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재정, 1975 : Fagot, 1974)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가 아들에게는 男性性을 딸에게는 女性性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하게 된다고 Hamilton (1977)은 지적하였다. 認知的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아들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는데 (문미옥, 1983 : Bell과 Johnson, 1981) 이것은 부모가 (특히 父) 여아에게는 分析的이길 원치 않고 다만 여성적 분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Lynn (1974)은 풀이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계승이라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남아를 존중하여 왔는데 (유안진, 1984)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부모들의 의식은, 자녀를 기르는 의미를 “가문 존속”에다 가장 많이 두고 있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아직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양옥남 (197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수유를 할 때, 물리적 환경을 제공할 때, 또 집안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아들을 우선적으로 대하고, 의생활, 잠자리 돌봐주기, 위생 관리면에서는 딸에게 더 관심을 두고 돌봐주며, 건강 또는 영양 관리면에서는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서 아버지들은 경제적, 인적, 물리적 환경제공, 건강·위생 관리, 기본교육 및 생활습관, 애정 및 관심 표현, 대인관계

등에서 아들보다 딸에게 더 관심을 두고 대하며, 신체 발달면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 1985).

역할기대나 성취기대를 할 때에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안복례, 1978, 1979, 1981) 즉, 아들에겐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딸에겐 사회적이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생활을 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며, 어머니에 비해서 활동적이고 자극적인 상호작용을 자녀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父母役割에 대한 責任意識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에 대해선 Nye (1976) 그리고 Gilbert과 Hanson (1983)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Gilbert과 Hanson의 이론을 中心으로 다루고자 한다.

Nye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의 사회화 역할 (socialization role)과 자녀 양육 역할 (child care role)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누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한 의생활과 식생활제공,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도와주는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것, 자녀를 훈육하는 것, 청결 상태를 돌봐주는 것, 따뜻한 애정을 보이는 것, 누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Gilbert와 Hanson도 Nye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나 이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교육적인 면 (teaching)과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일 (basic needs), 가족 및 사회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봐주는 일 (interface role)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밑에 13개의 하위영역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의 認知發達을 돋는 것 (Cognitive Development : CD)

: 부모는 자녀의 학습상황을 돌봐주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선 성의껏 반응하며 자녀와 지적인 내용의 대화를 통하여, 상호작용수준을 質的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활동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②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돋는 것 (Handling of Emotions : HE)

: 부모는 자녀에게 늘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性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③ 자녀의 社會性發達을 도와주는 것 (Social Skills : SoS)

: 부모는 자녀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공동생활에서의 규칙을 알려주고 정정당당하게 생활할 줄 아는 태도를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④ 자녀에게 규범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Norms and Social Values : N & V)

: 부모는 자녀가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덕적인 삶과 성의가 무엇인지 등 성장하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5) 자녀의 身體的인 발달을 돋는 것 (Physical Health : PhH)

: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하여 운동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인식시키고,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가르치며 또 함께 참여도 해야 한다.

(6) 자녀의 위생상태를 돌봐주는 것 (Personal Hygiene : PeH)

: 부모는 자녀의 청결상태를 점검하여 (이닦는 것, 목욕, 의복, 환경관리 등)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7) 자녀에게 生存能力을 길러주는 것 (Survival Skills : SuS)

: 부모는 자녀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처신해 나가는 方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응급처치, 화재시의 처신, 조리, 구매, 수선하는 것 등 유사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가르쳐야 한다.

(8) 자녀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 (Health Care : HC)

: 부모는 늘 관심을 갖고 자녀의 건강상태를 돌봐주어야 한다. 부모자신이 먼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건강상태는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와 의논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9) 자녀에게 物理的인 환경을 제공하는 일 (Material : Food/Clothing/Shelter : M)

: 부모는 자녀의 衣食住 生活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교육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10)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는 일
(Meeting the Emotional Needs of the Child : EN)**

: 부모는 자녀와 대화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자녀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자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1) 자녀에 대한 보호관리를 하는 것
(Child Care : CC)**

: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어린 자녀는 등·하교 및 잠자리를 돌봐주고, 여러 가지 과외 활동에도 데리고 가 풍부한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보아야만 한다.

(12)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일 (Between Child and Social Institution : C & S I)

: 부모는 자녀가 참여하는 활동에 관여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 및 전문가와의논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13) 자녀에게 가족 공동체 의식과 가풍을 심어주는 일 (Between Child and the Family : C & F)

: 자녀에게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가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풍을 전달하는 것, 친지들과의 유대 강화 등 자녀가 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13영역의 역할들을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Gilbert 와 Hanson은 정의하고 있다.

Gilbert 와 Hanson, 그리고 Davis (1982)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CD), 정서발달 (HE), 사회성발달 (SoS), 규범과 가치관 (N&V), 신체발달 (PhH), 정서관리 (EN), 가족생활 (C&F) 등 7개영역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한 결과,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아들과 딸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버지는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Gilbert 와 Hanson의 1983년도 연구결과에서는 앞서 기술한 13영역에 대하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발달 (HE), 사회성발달 (SoS), 규범과 가치관 (N&V), 생존력 (SuS), 건강관리 (HC), 정서관리 (EN) 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I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전기 및 학동기 자녀를 둔 父母로서, 서울시내에 있는 유치원 (中上流지역, 2곳)과 유아원 (中下流지역 2곳) 및 국민학교 (中流地域 2개교 2, 3학년)에서 아버지 151명, 어머니 169명 등 총 320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자녀구성형태 및 가족형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1-1〉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

| 연 령 | N(%) | |
|---------|----------------|----------------|
| | 父 | 母 |
| 21 - 30 | - | 14 (8.1) |
| 31 - 40 | 108 (17.5) | 144 (85.4) |
| 41 - 50 | 40 (26.8) | 11 (6.5) |
| 50 이 상 | 3 (1.7) | - |
| 計 | 151 (100.0) | 169 (100.0) |

〈표1-2〉 연구대상자의 학력분포

| 학 력 | N(%) | |
|----------|----------------|----------------|
| | 父 | 母 |
| 국 민 학 교 | 1 (0.7) | 2 (1.2) |
| 중 학 교 | 7 (4.7) | 22 (12.8) |
| 고 등 학 교 | 37 (24.2) | 68 (40.3) |
| 대학 및 그이상 | 106 (70.4) | 77 (45.7) |
| 計 | 151 (100.0) | 169 (100.0) |

〈표1-3〉 연구대상자의 자녀구성형태분포

| 자녀구성형태 | N(%) | |
|----------------|----------------|----------------|
| | 父 | 母 |
| 아들만 있는 경우 | 32 (21.5) | 31 (18.5) |
| 딸만 있는 경우 | 31 (20.5) | 38 (22.4) |
|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 | 88 (58.0) | 100 (59.1) |
| 計 | 151 (100.0) | 169 (100.0) |

〈표1-4〉 연구대상자의 가족형태분포

| 가족형태 | N(%) | |
|-------|----------------|----------------|
| | 父 | 母 |
| 대 가 족 | 24 (15.6) | 26 (15.2) |
| 핵 가 족 | 127 (84.2) | 143 (84.8) |
| 計 | 151 (100.0) | 169 (1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Gilbert 와 Hanson(1983)의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s (이하 PPRS라고 함)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PRS는 부모역할에 관한 78개의 문항(자녀의 성별이 없다)이 1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제 1 영역에서 제 7 영역까지는 교육(teaching)에 관한 것, 제 8 영역에서 제 11 영역까지는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는 일(basic needs), 제 12

영역과 제 13 영역은 중재역할(interface role)을 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성격과 해당 문항번호는 다음과 같다.

〈표 1-5〉 PPRS의 영역별 내용 및 해당문항

| 영 역 | 내 용 | 해 당 문 항 |
|-----|---------------|----------------------------|
| 1 | 인 지 발달 (CD) | 19, 54, 60, 64, 72, 77 |
| 2 | 정 서 발달 (HE) | 20, 41, 65, 68, 73, 75 |
| 3 | 사회성 발달 (SoS) | 1, 6, 18, 21, 25, 28, 55 |
| 4 | 규범과 가치관 (N&V) | 5, 11, 36, 39, 71, 78 |
| 5 | 신체발달 (PhH) | 22, 29, 37, 50, 66, 69 |
| 6 | 위생관리 (PeH) | 23, 30, 38, 51, 61 |
| 7 | 생존 능력 (SuS) | 9, 15, 32, 40, 58, 74 |
| 8 | 건강관리 (HC) | 2, 8, 42, 44, 47, 51, 57 |
| 9 | 물질제공 (M) | 12, 31, 62, 67, 70 |
| 10 | 정서관리 (EN) | 14, 16, 17, 27, 35, 43, 46 |
| 11 | 보호관리 (CC) | 7, 13, 24, 45, 59, 76 |
| 12 | 사회생활 (C&SI) | 3, 10, 33, 48, 53, 56 |
| 13 | 가족생활 (C&F) | 4, 26, 34, 49, 63 |

본 연구에서는 父母의 性과 子女의 性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아들과 딸에 대한 의도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

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것과 딸에 대한 것을 별도로 응답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방은령,

1985 참조). 또한 PPRS의 타당성 및 변안상의 문제는 대학에서 아동학, 교육학, 부모교육 및 가족관계학 등을 강의하고 있는 6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번안된 PPRS의 각 영역내 문항일치도는 .68 ~ .82를 나타내었다. 완성된 질문지는 학령전기 및 학동기 자녀를 가진 중류가정의 부모 9人(父: 4명, 母: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결과, 모두 응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반응함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3. 研究節次

전체연구기간은 1985년 10월에서 1986년 6월까지로서 이중 설문지 조사기간은 1986년 4월 15일에서 동년 5월 5일까지였다.

먼저 해당기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각 기관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자모회를 통해서, 사전에 학부모가 질문지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질문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용으로 각 가정에 2부씩 전달되었으며 사정(부친 또는 모친부재)이 있는 경우는 1부씩, 총 600부(父 296, 母 304)가 전달되었다. 회수는 배포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여 총 459(父 218, 母 241)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한 문항이라도 누락되어 있는 응답지는 모두 제외하여 최종 320부(父

151, 母 169)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分析方法

부모와 자녀의 성별이 13영역의 부모역 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하였고, 의미있는 효과에 대해 Univariate F-test를 하였으며 아들과 딸 각각에 대한 부모의 성별효과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자녀의 성별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MANOVA를 사용하였다.

V. 研究結果

본 연구는 父母가 父母役割에 대한 責任意識을 지니는데 있어서 부모자신과 자녀의 성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나타나는 13영역의 부모역 할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하여 Two-way MANOVA를 한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2-1〉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에 관한 Two-Way MANOVA

| 변 량 원 | Wilks Lamda Value | F |
|---------------------|----------------------|--------------|
| 부모의 성별 | .85947 | 7.84833 *** |
| 자녀의 성별 | .75041 | 15.96499 *** |
| (부모의 성별) × (자녀의 성별) | .96238 | 1.87612 * |

hypothesis df = 13, error df = 624

* p < .05, *** p < .001

〈표2-1〉에서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성별은 각각 독립변인으로 부모역 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는데 있어서서 효과를 나타냈고 (p < .001) 이를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5%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이를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하여 Univariate F-test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父母의 性別效果

부모역 할에 대한 책임의식은 규범과 가치관 (N & V), 생존력 (SuS), 사회생활 (C & S I), 가족생활 (C & F) 영역을 제외한 9개영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부모의 성별 효과에 대한 Univariate F-test

| Variable | F |
|----------|--------------|
| ① CD | 5.93877 * |
| ② HE | 5.61068 * |
| ③ SoS | 3.94578 * |
| ④ N&V | 1.79777 |
| ⑤ PhH | 4.82627 * |
| ⑥ PeH | 43.83480 *** |
| ⑦ SuS | 2.96141 |
| ⑧ HC | 9.09236 ** |
| ⑨ M | 22.74375 *** |
| ⑩ EN | 14.30770 *** |
| ⑪ CC | 15.00453 *** |
| ⑫ C&S I | 1.54963 |
| ⑬ C&F | .63296 |

hypothesis df = 13, error df = 624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성별효과를 아들과 딸로 나누어 각각 One-way MANOVA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3〉 아들에 대하여 : 부모의 성별효과에 대한 One-Way MANOVA

| Source of Variation | Variable | Hypo th. MS | Error MS | F |
|---------------------|----------|-------------|----------|-------------|
| 부 모 의 성 별 | ① CD | 1.40367 | .44816 | 3.13203 |
| | ② HE | .68552 | .58554 | 1.17074 |
| | ③ SoS | .00010 | .36939 | .00027 |
| | ④ N&V | .11572 | .43636 | .26520 |
| | ⑤ PhH | 6.08257 | .55996 | 10.86242*** |
| | ⑥ PeH | 15.29488 | .66930 | 22.85222*** |
| | ⑦ SuS | .14909 | .60352 | .24703 |
| | ⑧ HC | 4.31780 | .51072 | 8.45438*** |
| | ⑨ M | 5.90737 | .57257 | 10.31831** |
| | ⑩ EN | 3.09892 | .39265 | 7.89239*** |
| | ⑪ CC | 6.54425 | .52735 | 12.40961*** |
| | ⑫ C&SI | .41750 | .53365 | .78234 |
| | ⑬ C&F | .10634 | .43595 | .24393 |

Multivariate F = 6.44610, df = 13/306, p < .001

** p < .01 *** p < .001

〈표 2-3〉을 보면, 아들에 대하여 인지 발달(CD), 정서발달(HE), 사회성 발달(SoS), 규범과 가치관(N&V), 생존력(SuS), 사회생활(C & SI), 가족생활(C & F) 영역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

식을 지니는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발달(PhH) 위생 관리(PeH), 건강관리(HC), 물질제공(M) 정서관리(EN), 보호관리(CC)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2-4〉 아들에 대하여 : 父와 母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영역비교 M (SD)

| 영 역 | 父 | 母 |
|----------|------------------|------------------|
| ⑤ PhH*** | 3.91503 (.73277) | 3.64020 (.76201) |
| ⑥ PeH*** | 3.83007 (.90431) | 4.26588 (.73195) |
| ⑧ HC ** | 3.49113 (.75537) | 3.72269 (.67593) |
| ⑨ M *** | 3.66797 (.83198) | 3.93882 (.68182) |
| ⑩ EN ** | 4.16433 (.65296) | 4.36050 (.60193) |
| ⑪ CC *** | 2.75708 (.74043) | 3.04216 (.71314) |

** p < .01 , *** p < .001

〈표 2-4〉에서와 같이 신체발달(PhH) 영역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고 ($p < .001$), 위생관리(PeH), 건강관리(HC), 물질제공(M), 정서관리(EN), 보호관리(CC)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

게 지니고 있었다.

한편 딸의 경우는 〈표 2-5〉에서와 같이 인지발달(CD), 규범과 가치관(N&V), 신체발달(PhH), 생존력(SuS), 건강관리(HC), 사회생활(C&SI), 가족생활(C&F) 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정서발달(HE), 사회성발달

〈표 2-5〉 딸에 대하여 : 부모의 성별효과에 대한 One way MANOVA

| Source of Variation | Variable | Hypoth. MS | Error MS | F |
|---------------------|----------|------------|----------|--------------|
| 부 모 의 성 별 | ① CD | 1.24913 | .44938 | 2.77965 |
| | ② HE | 2.67784 | .51064 | 5.24411 * |
| | ③ SoS | 3.44047 | .48272 | 7.12730 ** |
| | ④ N&V | .91926 | .50625 | 1.81584 |
| | ⑤ PhH | .00742 | .64119 | .01157 |
| | ⑥ PeH | 11.62771 | .55519 | 20.94354 *** |
| | ⑦ SuS | 2.22126 | .60054 | 3.69878 |
| | ⑧ HC | .90417 | .50516 | 1.78987 |
| | ⑨ M | 5.21003 | .41152 | 12.66032 *** |
| | ⑩ EN | 2.32009 | .36499 | 6.35663 * |
| | ⑪ CC | 2.34661 | .59724 | 3.92906 * |
| | ⑫ C&SI | .49789 | .64492 | .77202 |
| | ⑬ C&F | .24055 | .60174 | .39976 |

Multivariate F = 2.84976, df = 13 / 306,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SoS), 위생관리(PeH), 물질제공(M), 정서관리(EN), 보호관리(CC)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6개영역에선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다. 〈표 2-6〉

〈표2-6〉 딸에 대하여 : 父와 母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영역비교 M(SD)

| 영 역 | 父 | 母 |
|-----------|------------------|------------------|
| ② HE * | 4.05593 (.75997) | 4.24008 (.67181) |
| ③ SoS ** | 4.01151 (.74574) | 4.22024 (.64627) |
| ⑥ PeH *** | 3.95436 (.81808) | 4.33810 (.67388) |
| ⑨ M *** | 3.99195 (.69860) | 4.24881 (.58627) |
| ⑩ EN * | 4.30393 (.63352) | 4.47534 (.57686) |
| ⑪ CC * | 2.99329 (.78051) | 3.16567 (.76594) |

* p < .05 , ** p < .01 , *** p < .001

2. 子女의 性別效果

물질제공(M), 정서관리(EN), 보호관리(CC) 영역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르게 지니고 있었다. 〈표2-7〉에서와 같이 父母는 정서 발달(HC), 신체발달(PhH), 생존력(SuS),

〈표2-7〉 자녀의 성별효과에 대한 Univariate F-test

| Variable | Univariate F |
|----------|--------------|
| ① CD | 3.00842 |
| ② HE | 28.29213 *** |
| ③ SoS | .88537 |
| ④ N&V | 2.29830 |
| ⑤ PhH | 12.77179 *** |
| ⑥ PeH | 2.44577 |
| ⑦ SuS | 18.43813 *** |
| ⑧ HC | 1.81323 |
| ⑨ M | 32.53915 *** |
| ⑩ EN | 6.75795 ** |
| ⑪ CC | 8.88761 ** |
| ⑫ C & SI | .02520 |
| ⑬ C & F | 2.53038 |

hypothesis df = 13, error df = 624.

** p < .01 , *** p < .001

자녀의 성별효과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음과 같다.

각각 One-way MANOVA를 한 결과는 다

〈표2-8〉 어머니의 경우 : 자녀의 성별효과에 대한 One-way MANOVA

| Source of Variation | Variable | Hypothesis MS | Error MS | F |
|---------------------|----------|---------------|----------|--------------|
| 자녀의 성별 | ① CD | .666798 | .42013 | 1.58992 |
| | ② HE | 10.63586 | .48114 | 22.10550 *** |
| | ③ SoS | .21540 | .39782 | .54147 |
| | ④ N&V | 1.12288 | .45135 | 2.48783 |
| | ⑤ PhH | .60534 | .58185 | 1.04037 |
| | ⑥ PeH | .44063 | .49517 | .88984 |
| | ⑦ SuS | 8.77436 | .59422 | 14.76625 *** |
| | ⑧ HC | .02473 | .45992 | .05377 |
| | ⑨ M | 8.11943 | .40465 | 20.06515 *** |
| | ⑩ EN | 1.11429 | .34763 | 3.20537 |
| | ⑪ CC | 1.28914 | .54738 | 2.35511 |
| | ⑫ C&SI | .00318 | .59723 | .00533 |
| | ⑬ C&F | .56297 | .46552 | 1.20934 |

Multivariate F = 9.05712, df = 13 / 324, p < .001

*** p < .001

〈표2-8〉을 보면 어머니는 정서발달(H E), 생존력 (SuS), 물질제공 (M) 등 3개 영역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었

는데 이 3영역 모두, 아들보다 딸에 대해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다. (표 2-9)

〈표2-9〉 어머니의 경우 : 자녀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영역비교 M (SD)

| 영역 | 아들 | 딸 |
|-----------|------------------|------------------|
| ② HE *** | 3.88529 (.71456) | 4.24008 (.67181) |
| ⑦ SuS *** | 3.65196 (.78736) | 3.97421 (.75379) |
| ⑨ M *** | 3.93882 (.68182) | 4.24881 (.58627) |

*** p < .001

그러나 인지발달(CD), 사회성발달(SoS), 규범과 가치관(N&V), 신체발달(PhH), 위생관리(PeH), 건강관리(HC), 정서관리(EN), 보호관리(CC), 사회생활(C&SI), 가족생활(C&F) 등에선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는 <표 2-10>에서와 같이 정서발달(HE), 사회성발달(SoS) 신체발달(PhH), 생존력(SuS), 물질제공

(M), 보호관리(CC) 등 6개 영역에서 자녀성별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르게 지니고 있었는데, 신체발달(PhH)과 사회성발달(SoS)에서는 딸보다 아들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고, 정서발달(HE), 생존력(SuS), 물질제공(M), 보호관리(CC) 영역에서는 딸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다.<표 2-11>

<표2-10> 아버지의 경우 : 자녀의 성별효과에 대한 One-way MANOVA

| Source of Variation | Variable | Hypoth. MS | Error MS | F |
|---------------------|----------|------------|----------|--------------|
| 자녀의 성별 | ① CD | .68365 | .48083 | 1.42181 |
| | ② HE | 5.21738 | .62382 | 8.36357 ** |
| | ③ SoS | 1.91711 | .45654 | 4.19920 * |
| | ④ N&V | .15484 | .49295 | .31411 |
| | ⑤ PhH | 10.28790 | .62074 | 16.57370 *** |
| | ⑥ PeH | 1.16625 | .74450 | 1.56648 |
| | ⑦ SuS | 2.94610 | .61081 | 4.82325 * |
| | ⑧ HC | 1.51484 | .56178 | 2.69650 |
| | ⑨ M | 7.92295 | .59148 | 13.39517 *** |
| | ⑩ EN | 1.47107 | .41402 | 3.55312 |
| | ⑪ CC | 4.21172 | .57831 | 7.28283 ** |
| | ⑫ C&SI | .01384 | .57928 | .02389 |
| | ⑬ C&F | .76210 | .57692 | 1.32099 |

Multivariate F=8.73718, df=13/288,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표2-11〉 아버지의 경우 :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영역비교 M(SD)

| 영 역 | 아 들 | 딸 |
|-----------|------------------|------------------|
| ② HE *** | 3.79303 (.81784) | 4.05593 (.75997) |
| ③ SoS * | 4.17087 (.59965) | 4.01151 (.74574) |
| ⑤ PhH *** | 3.91503 (.73277) | 3.54586 (.84070) |
| ⑦ SuS * | 3.60893 (.76503) | 3.80649 (.79815) |
| ⑨ M *** | 3.66797 (.83198) | 3.99195 (.69860) |
| ⑪ CC ** | 2.75708 (.74043) | 2.99329 (.78051) |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인지발달(CD), 규범과 가치관(N&V), 위생관리(PhH), 건강관리(HC), 정서관리(EN), 사회생활(C&SI), 가족생활(C&F) 영역에서는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2-12〉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Univariate F-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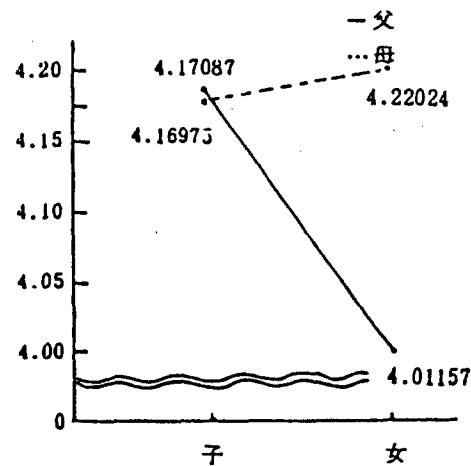
| Vaviable | Univariate F |
|----------|--------------|
| ① CD | .00347 |
| ② HE | .61376 |
| ③ SoS | 4.12620 * |
| ④ N&V | .41464 |
| ⑤ PhH | 5.37780 * |
| ⑥ PeH | .17650 |
| ⑦ SuS | 1.02961 |
| ⑧ HC | 1.21763 |
| ⑨ M | .01583 |
| ⑩ EN | .06451 |
| ⑪ CC | .90094 |
| ⑫ C&SI | .00371 |
| ⑬ C&F | .027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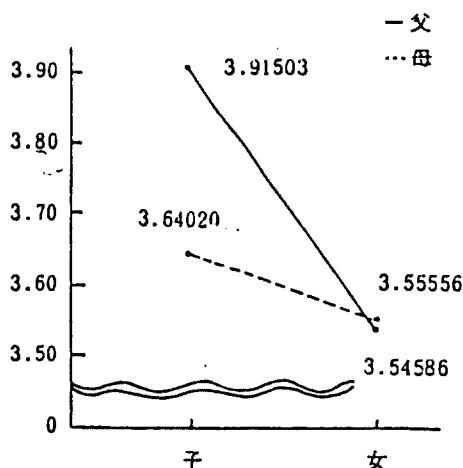
hypothesis df = 13, error df = 624

* p < .05

3. 父母의 性別과 子女의 性別間의 相互作用效果

〈표2-12〉에서와 같이 이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과는 사회성발달(SoS)과 신체발달(PhH)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사회성발달(SoS)영역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신체발달(PhH) 영역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사회성발달(SoS) 영역에서는 아들에 대한 반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1%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신체발달(PhH) 영역에서는 딸에 대한 반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들에 대해서는 .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V. 論議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닐 때 父母와 子女의 性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부모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F = 7.84833$, $df = 13/624$, $P < .001$)

영역별로는 인지발달(CD), 정서발달(HE) 사회성발달(SoS), 위생관리(PeH), 건강관리(HC), 물질제공(M), 정서관리(EN), 보호관리(CC) 영역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고 신체발달(PhH) 영역에서는 아버지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가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母의 역할로 인식되던 영역들로서,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전통적인 역할개념이 남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를 도구적인 역할로, 어머니는 표현적인 역할로 묘사했던 Parsons와 Bales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나, Gilbert와 Hanson (1983)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정서발달(HE), 건강관리(HC), 정서관리(EN), 사회성발달(SoS) 영역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일치하고 있으나, 규범과 가치관(N&V) 생존(SuS)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의식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체발달(PhH) 영역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가 생활화 되어 있는 미국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육체적인 활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 의한 사고방식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할 때 아들, 딸 모두에 대해서 규범과 가치관(N&V) 가족생활(C&F) 사회생활(C&SI) 등을 중요시하고 있었고 이들

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아들보다는 딸에 대해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다. ($F = 15.96499$, $df = 13 / 624$, $p < .001$) 정서발달 (HE), 생존력 (SuS), 물질제공 (M) 정서관리 (EN), 보호관리 (CC)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는데, 어머니의 경우 정서발달 (HE), 생존력 (SuS), 물질제공 (M) 영역에서 아들보다 딸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자녀성별에 따른 차이를 드지 않았다. 정서발달 (HE)과 신체발달 (PhH)에 관한 결과는 양옥남 (1978)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나 가족생활 (C & F) 영역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그동안 어머니의 자녀성별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는 정서발달 (HE), 생존력 (SuS), 물질제공 (M), 보호관리 (CC) 영역에서 아들보다 딸에 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어, 어머니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사회성발달 (SoS)과 신체발달 (PhH)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은 반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딸에 대해선 정서적인 면과 보호하고 관리하는 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모들이 남아에 비해 여아는 “약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더욱 감싸주고 보호해주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견해들을 (장재정, 1975 : Fagot, 1978)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아버지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는 결과들 (Block, 1979, 1981 : Fagot, 1978 : Lamb, 1976 : Lynn과 Gross, 1974) 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지영역 (CD)과 가족생활 (C & F) 영역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부모가 아들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 자녀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부모들에겐 아직도 전통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다. 가정과 사회생활구조의 변화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고려할 때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녀양육측면에서 어머니는 보다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보다 직접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부모들의 子女性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내용이 보호관리가 많이 요구되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남아를 특히 존중하여 유던 가족생활 (C & F) 영역에서 본 연구 결과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모

들은 딸에 대해선 “약하고”, 아들에 대해선 “강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과 보호관리하는 면에선 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자녀를 대할 때 아들에게는 이러한 면들을 소홀히 하기 쉽고, 딸에겐 자율적인 행동과 독립심을 잊게 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들 딸 모두에게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양육가치관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영역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연령에 따른 부모들의 책임의식에 대한 조사가 요망된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실정에 맞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정도와 역할수행도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층에 타당한, 부모역할에 대한 척도의 개발이先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82). 青年期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수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論文.
- 김미영.(1984). 아버지 역할과 兒童의 지각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論文.

- 문미옥.(1983). 幼兒期 子女의 아버지 역할에 關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論文.
- 박성수, 이연섭, 정원식.(1984). 兒童心理와 가정교육. KBS-TV 공개대학 시리즈 13.
- 안복례.(1978). 父母의 養育態度에 對한 調查研究(兒童期 教育을 中心으로). 대구교대 論文集, 14, 17-97.
- 안복례.(1979). 父母의 養育態度에 關한 調查研究(幼兒期 教育을 中心으로). 대구교대 論文集, 15, 63-92.
- 안복례.(1981). 父母의 養育態度에 關한 調查研究(비행청소년과 一般청소년을 對象으로 한 比較研究) : 대구교대 論文集, 17, 253-281.
- 양옥남.(1978). 子女教育에 있어서의 性差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論文.
- 위영희.(1978). 兒童養育에서의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兒童의 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論文.
- 유안진.(1984). 韓國 전통 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 유영주.(1981). 가족 관계학. 서울: 수학사.
- 장재정.(1975). 부모의 性 구분과 子女에 대한 허용성 및 男兒존중 태도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論文.

정미리.(1984). 부모의 자녀에 대한 性 特
성 기대 및 양육태도.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論文.

하승민.(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와 자
녀양육 가치관.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論文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한국인의 가정
생활과 자녀교육.

Adams, Kathryn A. and Davis, Liane V.(1978).
The Father's Perception of His Role and
the Child'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Research in Education, ED. 177-
306.

Bell, Colleen S. and Johnson, James E. (1981).
The Effects of Family Constellation and
Child Gender on Parental Use of Evaluative
Feedback. Child Development, 52,
701-704.

Berardo, Felix M. and Nye, F. Ivan. (1973).
The Family-It's Structure and Interaction.
N.Y.: The MacMillan Company.

Bigner, J.J. (1979). Parent-child Relations.
N.Y.: McMillan Publishing Co.

Biller, H.P. (1969). Father Dominance and
Sex Role Development In Kindergarten
Age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1, 87-94.

Block, J.H., Block, J. and Morrison, A. (1979).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
Rearing Orientation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Rese-
arch in Education. ED. 182-292.

Block, J.H., Block, Jack and Morrison, Andre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
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Bronstein, Phyllis. (1984). Differences in Mo-
thers' and Fathers' Behavior Toward Chil-
dren: A Cross-Cultural Comparison. De-
velopmental Psychology, Vol.20, No.6,
995-1003.

Burger, G.K. and Armentrout, J.A. (1972).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Child-Re-
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 De-
velopmental Psychology, 744-748.

Droppleman, V.F. and Schaeffer, E.S (1963).
Boys and Girls Report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48-654.

Easterbrooks, M. Ann and Goldberg, Wendy
A. (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
ment, 55, 740-752.

Fagot, Beverly I. (1974). Sex Differences in
Toddlers' Behavior and Parental Re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0, No.4,
554-558.

Fash, Deborah S. and Madison, Charles L.
(1981). Parents' Language Interaction with
Young Children: A Comparative Study
of Mothers' and Fathers'. Child Study
Journal, Vol.11, No.3, 137-153.

Gilbert, Lusia A. and Hanson, Gary R. (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
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ruary, 203-
212.

Gilvert, L.A., Hanson, G.R. and Davis, B.
(1982).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
po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Family Relations, 31, 261-
269.

Golinkoff, R.M. and Ames, G.J. (1979).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Spe-
ech With Their Young Children. Child

- Development, 50, 28-32.
- Hamilton, Marshall L. (1978). Father's Influence on Child. Chicago, Nellson Hall.
- Henderson, Ronald W. (1981). Parent-Child Interaction. Academic Press.
- Kotelchuck, M. (1976). The Infant's Relationship to the Father: Experimental Evidence.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hon Willey and Sons, 329-344.
- Lamb, M.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nglois, J.H. and Dawns, A.C.(1980). Mothers, Fathers and Peers as Socialization Agents of Sex-Typed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1237-1247.
- Levant, Ronald F. (1980). A Male Perspective on Parenting and Non-Parent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22nd. Research in Education. ED. 217-299.
- Lynn, D. and Gross, A. (1974). Parental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 555-559.
- Marcus, Terri L. and Corsini David, A. (1978). Parental Expectations of Preschool Children as Related to Child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Child Development, 49, 243-246.
- Maccoby, Eleanor E., Snow, Margaret Ellis and Jacklin, Carinagy. (1983). Sex-of-Child Differences in Father-Child Interaction as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54, 227-232.
- Main, Mary and Weston, Donnar R.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Nye, F. Ivan. (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 Hills, CA: Sage.
- Parke, R.D. and Sawin, B. (1980). Fathering; It's a major role. Human Development, 138-139.
- Parsons, J.E., Adler, T.F. and Kaczala, C.M. (1982).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attitude and Beliefs; Parent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53, 310-321.
- Stoneman, Zolinda and Brody, G.H. (1981). Two's Company, Three Makes a Difference : An Examination of Mother's and Father's Speech to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705-707.
- Tauber, Magaret A. (1979). Parental Socialization Techniques and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 Child Development, 50, 225-234.
- Thompson, S. (1975). Gender Labels and Early Sex Rol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6, 339-347.
- Voydanoff, Patricia and Fodman, Hyman.(1978). Mothers' and Fathers' Aspirations for Sons and Daughters. Research in Education. ED. 178-630.